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3. 4. 19.(수), 14:00
2. 장소 :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1	박영미*, 임동훈**, 김세완, 김병선, 김재욱, 정연화, 김민지, 이수지, 이명경, 임진, 김정권	고민희(간사)
불참인원	1	오숙환	

* 의장 **부의장

4. 안건

- 제1호의안 : 2022학년도 결산안 자문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대학평의원회 운영세칙 제2조에 따라 이번 회의가 4월 정기회임을 안내하다.
- 나. 간사는 오숙환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전체 평의원 12명 중 11명 참석으로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 나.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다.

6. 안건 자문 및 논의

- 제1호의안 : 2022학년도 결산안 자문

- (1) 의장은 2022학년도 결산안 자문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진행 순서에 따라 이화의료원 및 본교 기획처에서 배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예정임을 안내하다.

(배석자: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

- (2) 의장은 의료원 배석자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고,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 및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은 이화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의 순서로 2022학년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3) 김정권 평의원은 이화의료원 결산안이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의 결산안을 합산한 결과인지 질의하다.

- (4)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은 이화의료원의 결산안은 양 병원을 합친 규모이기는 하나,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 간의 위탁검사 시행 및 회계 이관 등 내부거래에 대한 부분이 일부 제외되어 단순 합계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다.
- (5) 김정권 평의원은 이화의료원의 인건비와 경비가 양 병원에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는지 질의하다.
- (6)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은 이화의료원은 별도 회계가 없으며 이화의료원 인력의 소속은 이대서울병원으로 하고, 인건비는 1년에 한 번씩 책정하여 이대목동병원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답하다.
- (7) 김세완 평의원은 의료수익 증가율에 비해 인건비 증가율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8)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작년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으로서 177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에 따른 의료 인력을 충원하였다고 말하고, 충원된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의료비용에 해당되나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을 통한 진료비는 코로나19 지원금(손실보상금)으로서 의료외수익 상승분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하다.
- (9) 김세완 평의원은 코로나 거점전담병원 해제 시에는 반대 상황이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10)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조기에 병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화의료원 경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답하다.
- (11) 김재욱 평의원은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전기수도료, 연료비 등이 기타관리비로 포괄되어 있어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의 지출 규모를 비교 및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항목 구분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다.
- (12) 김정권 평의원은 각 병원의 인건비 절감, 원가 절감, 수익성 증가 등 효율성을 어떻게 비교하고 평가하는지 질의하다.
- (13)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26개 주요 타 병원들과 연평균 성장률, 수익률 등을 지속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고 있다고 답하다. 다만, 비슷한 규모의 같은 상급종합병원일지라도 중증 환자 비율, 의료 인력 구성 등에 따라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하고, 각 병원별 특성화를 통한 성장의 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다.
- (14) 김정권 평의원은 타 병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병원은 어느 수준인지 질의하다.
- (15)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현재 연평균 성장률 지표는 1등이지만 실제 운영 병상수가 타 병원에 비해 많지 않고 규모 대비 진료 임상 교원수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전략적 특성화와 함께 의료진 확보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다.
- (16) 의장은 현재 병상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다.
- (17)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일반 병상 가동률이 82~85% 수준이라고 답하고, 다만 이

대서울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없어 주말 병상 가동률이 낮다고 설명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입원전담의, 중환자전담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의료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하다.

- (18) 의장은 양 병원의 수입, 지출 규모는 비슷하나 순익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이대서울병원의 특성화 병원 지정 등의 노력을 통해 내년에 어느 정도의 순익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질의하다.
- (19)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대서울병원은 특성화 병원 런칭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약 360억 원의 수입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하다.
- (20) 의장은 부채 상황 시기에 대해 질의하다.
- (21)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총 상환 기간 25년은 동일하되 거치 기간만 기존 5년에서 1.6년 연장하여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2026년도에 이대서울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고, 1,014병상으로 확대 개원을 하게 되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다.
- (22) 임동훈 평의원은 거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자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 질의하다.
- (23)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거치 연장 기간 동안 약 20억 원의 이자가 증가한다고 답하다. 이어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은 예산 수립 당시 CD금리 5%를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책정하였으나 현재 3.43~3.47% 수준이므로 이자 비용이 60억 원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부연하다.
- (24) 김병선 평의원은 이대서울병원 전공의 부족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의하다.
- (25)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정책을 고시하고 대한병원협회에서 전체 정원 TO를 정하고 있으며, 병원 내원 환자수, 교수 논문수 등의 종합지표가 반영되어 병원별로 TO를 배정받고 있다고 설명하다. 다만, 현재 전공의 수련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각 병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양 병원에서 전공의 충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다.
- (26) 의장은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이화의료원의 2022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배석자: 기획처장, 기획처부처장(예산), 예산팀장, 회계팀장)

- (27) 의장은 학교 배석자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은 2022학년도 결산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다.
- (28) 김정권 평의원은 학부등록금 수입과 관련하여 정원의 외국인 학생 등록금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전년 대비 변동이 있는지 질의하다.

- (29) 예산팀장은 학부 기준 외국인 학생 등록금 수입이 56~60억 원이며, 2023학년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 (30) 김정권 평의원은 작년에 예금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한 이유를 질의하다.
- (31) 기획처부처장(예산)은 기금 중 일부가 펀드에 가입되어 있는데 2022학년도 코스피 지수의 하락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립학교법상 투자 수익도 예금이자 수입으로 분류되어 해당 계정과목에 포함되었다고 부연하다.
- (32) 김정권 평의원은 통상적으로 퇴직 교원의 인건비가 더 높음에도 신규 교원 충원으로 교원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순 총원 인원이 몇 명인지 질의하다.
- (33) 기획처장은 전년도에 50명 이상의 신규 교원이 충원되었다고 답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반영하여 특별히 채용 규모가 컸던 것이라고 설명하다.
- (34) 김재욱 평의원은 산학전입금이 추경 대비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35) 예산팀장은 전년 대비 교외 연구 수주액이 증가하였고, 간접비도 교외 연구비에 비례하여 증가되었다고 답하다. 이어 산학에서 교내 연구과제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증액 전출하였다고 설명하다.
- (36) 정연화 평의원은 약 50명의 신규 교원이 채용되었으나 각 대학(원) 단위에서는 체감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주로 어떤 학과(전공)에 충원되었는지 질의하다.
- (37) 기획처장은 대규모 채용임에도 워낙 학과(전공)와 강좌가 많아 크게 체감하기는 어렵겠으나 영향력 있는 교원들이 신규로 충원되었으므로 추후 연구실적 등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하다.
- (38) 이수지 평의원은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19억 원 증가되었으나 연구학생경비의 경우 추경 예산에 비해 10억 원 감소한 것을 지적하고, 등록금 수입 증가분을 대학원 장학금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요청하다.
- (39) 예산팀장은 등록금 수입이 늘어난 만큼 장학금 예산 편성에 동액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고, 장학금이 추경예산 대비 감소한 것은 Frontier 10-10 사업과 관련한 사안으로 학생들이 실제 수혜받는 장학금액이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다.
- (40) 이수지 평의원은 이번 연도에 대학원생 장학금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하다.
- (41) 예산팀장은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대학원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는 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하다.
- (42) 김세완 평의원은 학부 등록금 수입의 38억 원 감소분 중 32억 원이 제적생 및 휴학생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과 관련하여 대상 학생 인원이 몇 명인지 질의하다.

- (43) 예산팀장은 2022학년도의 제적생수 증가는 본교 뿐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전년 대비 제적생수는 76명, 휴학생수는 1,072명이 증가하였다고 답하다.
- (44) 김세완 평의원은 병원 전입금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45) 예산팀장은 이번 연도부터 병원 전입금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며, 3월 말일자로 전입금 일부를 받았다고 답하다.
- (46) 김세완 평의원은 법적인 정의에 따라 예금이자와 투자수익을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다. 이어 관리운영비 중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세금액 15억 원과 교육외 비용·예비비 외 항목 중 교원소청 및 소송 관련 잡손실 3억 원의 경우 특별한 사안으로 집행된 금액인지,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던 사안인지 설명을 요청하다.
- (47) 기획처장은 세무조사 결과 교내 임대 매장에 대한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어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었던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답하다. 또한 교원 징계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일부 수용되지 않은 사안이 있어 과거 경과 기간 동안의 교원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 (48) 김세완 평의원은 전년 대비 기금 인출 금액이 증가하여 기금이 순감소한 부분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전하고, 기금이 얼마나 소진된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다.
- (49) 기획처부처장(예산)은 총 217억 원의 기금순액이 인출되었고,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관련 비용 150억 원과 펀드 기대 수익 미실현 금액 50억 원을 제외하면 균형 예산 수준의 지출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이어 이번 연도부터 이화의료원 전입금이 들어올 예정이므로 재정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부연하다.
- (50) 김세완 평의원은 특정 목적으로 353억 원의 기금을 인출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계정이 무엇인지 질의하다.
- (51) 기획처부처장(예산)은 특정목적기금은 교육경쟁력강화기금, 대학역량확충기금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하고, 해당 기금은 우수인력 확보 지원에 326억 원, 교내정보인프라 사업에 9억 원 등에 활용하였다고 설명하다.
- (52) 의장은 특별히 교육경쟁력강화기금의 인출 폭이 큰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질의하다.
- (53) 예산팀장은 임의기금 잔액이 크지 않아 원금보존기금에서 250억 원을 인출하여 임의기금의 동일 항목으로 적립하였고, 교육경쟁력강화기금은 우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기존 교원 인건비 및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답하다.
- (54) 임동훈 평의원은 급여 관련한 예산 책정 시 최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별도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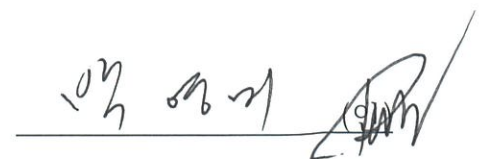
- (55) 기획처장은 별도 지침은 없다고 답하고, 다만 최근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하여 실질 급여가 낮아졌다고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 (56) 김정권 평의원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인건비 등의 지출 규모도 연동하여 책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한다.
- (57) 임동훈 평의원은 등록금 수입만 연동하여 인건비 예산을 책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을 전한다.
- (58) 기획처장은 교원 인건비는 대학의 경쟁력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앞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다.
- (59) 의장은 앞으로 물가 상승, 주가 하락 등의 악재가 있을 수 있고,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비용 감축의 노력이 없으면 재정 보존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을 전한다. 이어 비용 절감을 위한 학교 차원의 계획이 있는지 질의한다.
- (60) 기획처장은 최근 본부에서 재정 건정성,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재정과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한다.
- (61) 김세완 평의원은 학교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타교 벤치마킹 등을 통해 본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 (62) 김재욱 평의원은 학교가 힘든 상황에서도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교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이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한다. 특히 에너지 등 전문 분야에 전담 직원을 유치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63)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 또는 질문이 있는지 묻고 2022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한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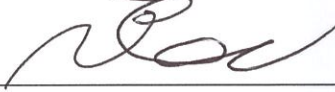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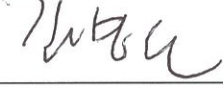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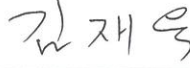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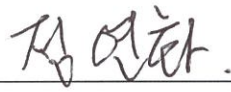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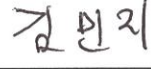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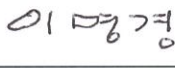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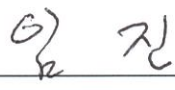
2023년 4월 19일

의 장 박 영 미



대학평의원회 2023년 제2차 회의

일시	2023. 4. 19.(수) 14:00	장소	본관 대회의실
안건	1. 2022학년도 결산안 자문		

구분	성명	서명
교수 평의원	박영미	
교수 평의원	임동훈	
교수 평의원	김세완	
교수 평의원	김병선	
직원 평의원	김재욱	
직원 평의원	정연화	
학생 평의원	김민지	
학생 평의원	이수지	
동창 평의원	이명경	
동창 평의원	임진	
대학발전 평의원	오숙환	
대학발전 평의원	김정권	